

61 광주광역시 61주년 기념사업 **MILLET** 공동주최
산행길과 함께하는 한국 명산 16좌 등반

〈9〉 영암 월출산

▲ 월출산 산행 코스 (6.6km·5시간)



지난 15일 '주)밀레 임흥길 대장과 함께하는 한국명산' 10차 산행에 참가한 등산 애호가들이 영암 월출산 최고봉인 천황봉(해발 809m)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날 산행에는 광주, 전남·북지역에서 12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잔설과 어우러진 형형색색 기암괴석 “소금강을 옮겨 봤네”

때죽나무·말오줌때 구경삼아 단숨에 바람폭포까지 내달려 빙폭에 취하고 봄소식 설레고

지난 15일 진행된 '주)밀레 임흥길 대장과 함께하는 한국명산' 10차 산행지는 '호남의 소금강'(小金剛)으로 불리는 영암 월출산(해발 809m)이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북 지역에서 1200여명의 등산 애호가들이 15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오전 10시 천황사 주차장에 집결했다. 이들은 사는 곳이 달라도 9차례의 산행을 통해 어느 정도 얼굴이 익은 터라 서로 악수를 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등산객들은 본부석에서 제공하는 커피와 녹차를 마시며 추위를 녹이면서 본부석 측면에 설치된 메도 플래카드에 빼곡하게 덕담(德談)을 적었다. 이들은 “인생을 즐겁게”, “지자요수 인자요산”(智者樂水 仁者樂山),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山是山 水是水), “아아~! 봄은 오는 데”와 같은 재치있으면서도, 알 듯 모를 듯 선문답(禪問答) 같은 문구를 많이 남겨 보는 이들의 미소를 자아냈다.

◇'호남의 소금강' 월출산=이번 산행코스는 천황 탐방지원센터를 출발해 바람폭포~광암터~천황봉~남근바위~바람재를 거쳐 경포대 탐방지원센터까지 6.6km로 5시간여가 소요된다.

임흥길 대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월출산의 좋은 기(氣)를 받아 계사년 새해에 행복하고, 안전산행을 하길 바란다”며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 이날 날씨는 지난달 가야산 산행할 때와는 달리 한결 누그러져 산행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등산로변 나무에는 때죽나무, 사삼나무, 말오줌때, 아란나무, 불나무, 사스레피나무, 졸참나무, 노린재나무, 노각나무, 대팻집나무 등 색다른 이듬표를 달고 있어 이채로웠다.

탐방안내소를 지나 400여m를 가면 천황사 터이다. 구름다리(구름다리)와 바람폭포 산행길이 이곳에서 갈린다. 구름다리~경포대 능선 삼거리 구간(1.2km)은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월 17일까지 3개월간 입산통제했다. 매봉과 사자봉을 이어주는 구름다리는 지난 1978년에 만들어졌다가 2006년 5월 새로 가설됐으며 우리나라에서 지상고(120m)가 가장 높은 현수교이다.

줄을 지어 1시간여 산행 끝에 도착한 바람폭포에서 산행객들은 잠시 배낭을 내려놓고 한숨을 돌렸다. 날씨가 풀

렸다고 하지만 폭포 일부는 흐르던 물이 수직으로 얼어붙어 있는 빙폭(氷瀑) 상태여서 사진 포인트가 됐다.

바람폭포에서 능선길을 향해 오를 때 구름속 감춰져 있던 햇살이 내리비추자 전북지역에서 온 등산객들은 남쪽 사자봉을 보며 “마치 수마이봉같다”고 말했다. 역광상태의 사자봉 실루엣이 전북 진안에 위치한 마이산 솟고과 닮아 보인다는 부연설명이다. 바람폭포에서 30여분후 능선길에 올라서자 육형제 바위(장군바위)를 비롯해 기암괴석으로 이뤄진 월출산의 자태가 모습을 드러냈다. 산행도중 일부 여성 등산객은 “소원을 빌고 가자”면서 발걸음을 멈추고 기암을 올려다 보며 두 손을 합장하기도 했다.

◇남을 배려하는 산행의식 질서=월출산은 달말에 바라본 형체가 아름다워 신라시대에는 월나산, 고려시대에는 월생산, 조선시대에는 월출산이라 불렀다 한다. 1988년 6월에 2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주봉인 천황봉(天皇峰)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사자봉, 서쪽으로 구정봉, 역새발 등으로 펼쳐지는 자연경관과 산세가 아름다워 일찍이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려왔다.

육형제봉앞 능선에서 천황봉까지는 800m 거리. 하지만 통천문(通天門) 부근은 잔설뿐 아니라 얼음마저 얼어붙어 있어 아이젠이 필수적이었다. 바위 끝에 아스라이 뿌리를 내린 한그루 소나무와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봉우리에 걸친 바위, 사삼 한뼘이 겨우 자랄 수 있는 통천문 등은 등산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마침내 천황봉에 도착하자 향로봉, 구정봉, 주지봉 등 장쾌한 장관이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펼쳐져 등산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대부분의 등산객은 천황봉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은 후 경포대 탐방지원 센터 방향으로 하산을 서둘렀다.

밀레산행에 4차례 참가했다는 유재호(67·전북 익산시)씨는 “산행을 하면 마음의 폭이 넓어짐은 물론 보약을 한재 먹는 격여서 건강에 좋다. 예전에 월출산을 4~5번 와봤지만 올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면서 “그러나 요즘 산행을 하다 보면 산행객들이 남을 배려하는 맘이 없고, 예년보다 쓰레기를 마구 버려 의식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사무소(소장 김승희)는 이날 밀레산행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차 나누기와 함께 쓰레기 봉투와 월출산 지도를 배부하며 '고객만족 서비스'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올해부터 국립공원내 모든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흡연제로' 참여 서명운동을 벌여 많은 등산객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김순환 탐방시설과장은 “앞으로 월출산을 찾는 모든 탐방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월출산을 전국 제일의 국립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TRUE PRODUCTS, REAL PEOPLE



2013년 소중한 분들에게
 봄 산행 초경량자켓으로
 진심한 마음을 전하세요
 지금 밀레 매장에서
 특별한 가격에
 만날 수 있습니다



밀레 봄맞이 특별이벤트

이벤트1
 밀레만의 독자기술 **Lite edge** 소재로 만든 초경량자켓 30% 할인

이벤트2
 고어텍스 등산화 구매시 여행용 다용도백 증정
 *할인품목 제외, 재고 소진시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사무소(소장 김승희) 직원들이 지난 15일 천황사 등산로 입구에서 밀레 산행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흡연제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